

[논 문]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과 보고문학의 한계

—간노 마사오(菅野正男) 『흙과 싸우다(土と戦ふ)』(1940)를 중심으로

안 지 나*

┆ 차 례 ┆

- I. 머리말
- II. 국책잡지의 문학 기획과 보고문학
- III. '순진한 청소년'의 만주이민
- IV. 정신주의의 한계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간노 마사오(菅野正男)의 『흙과 싸우다(土と戦ふ)』(1940)를 국책잡지 『신만주(新滿洲)』의 예외적인 지원 양상과 『흙과 싸우다』의 서사가 드러내는 청소년의용군의 문학적 표상의 양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부터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보다 청소년의용군의 첫 문학적 성과이자 청소년의용군 정책을 장려하는 선전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 가치는 이 작품이 청소년의용군 당사자에 의해 쓰인 보고문학으로서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청소년의용군이 처한 부당한 대우와 가혹한 노동력 착취의 현실을 담담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인식은 청소년의용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자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정신주의를 통한 극복으로 끝난다. 이는 학생/미성년자/하급자의 교사/성인/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제도적으로 증첩시킨 청소년의용군 제도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제어: 간노 마사오(菅野正男), 『흙과 싸우다(土と戦ふ)』, 『신만주(新滿洲)』, 청소년의용군, 보고문학

I. 머리말

1939년 5월, ‘국책잡지’ 『신만주(新滿洲)』에 간노 마사오(菅野正男, 1920~1941)의 「흙과 싸우다(土と戦ふ)(상)」이라는 소설이 실렸다. 이 소설은 6월에 「흙과 싸우다(하)」가 게재된 후 「흙과 싸우다(속)」이라는 제목의 속편이 10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이듬해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신만주』는 1940년 3월호부터 10월까지 매달 명사들의 독후감을 게재하는 등 이 작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신만주』가 문예잡지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는 분명 ‘특례’라고 할 만한 대우였다.

이처럼 특별한 대우가 작가의 문학적 재능이나 『흙과 싸우다』라는 작품 자체의 문학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간노는 일본의 동북 지방 농촌 출신 청년¹⁾으로, 『흙과 싸우다』가 그의 첫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938년 봄,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이하 청소년의용군) 훈련생으로서 만주의 현지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흙과 싸우다』를 썼다. 작가 본인이나 명사들의 독후감에서도 이 작품이 뛰어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²⁾가 되었고, 문부성 및 척무성(拓務省)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 1939년도 G씨 공로상, 만주문화회 제1회 작품

1) 이와테(岩手)현 출신, 1941년 22세의 나이에 결핵(結核)으로 사망했다. 유고집으로 『개척지의 봄(開拓地の春)』(滿洲移住協會, 1942)이 있다.

2) 입수 자료는 1939년 12월 20일 인쇄, 1940년 1월 1일 발행, 1941년 3월 20일 25판이다(菅野正男, 1941, 『土と戦ふ』, 東京: 滿洲移住協會). 『신만주』의 기록에 따르면 초판본의 부수는 약 1만부였다(1940. 7, 『新滿洲』第4卷 第7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第10卷, 東京: 不二出版, 87쪽). 이후 재판 부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판매량이 상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농민문학간화회(農民文學懇話會)의 아리마(有馬) 상을 수상하였다(1940. 10). 이처럼 『흙과 싸우다』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 작품이 청소년의용군의 수기, 즉 보고문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청소년의용군 정책상의 필요 때문이었다.

청소년의용군은 징병 직전 연령의 청소년(16세에서 19세까지의 남성 청소년)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인의 만주이민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중일전쟁의 발발로 성적이 저조한 만주이민에 이민자의 대량 송출을 피하며, 군사 훈련을 통하여 군사 및 치안 역할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 조직이었다.³⁾ 그러나 청소년의용군의 조직 및 진행 상황은 현저히 그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다. 이 정책은 1937년 척무성이 제출한 「만주에 대한 청년이민송출(滿洲に對する青年移民送出)」(11. 30)이 각의에서 결정된 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⁴⁾ 이듬해 1938년에는 이미 송출 인원의 모집, 훈련소 설치, 송출(1938. 4)이 이루어졌을 정도였다.⁵⁾ 그러나 현지에서는 청소년의용군을 위한 숙소나 교과 과정 등이 채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주로 송출된 청소년의용군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소년의용군이 처한 가혹한 현실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수필(『滿洲の印象』, 『改造』, 1939. 1. 2)과 같은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이 제한적이거나 대중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청소년의용군 사업은 급속도로 활기를 잃었다. 실시 첫해인 1938년 21,999명이었던 송출 인원이 이듬해에는 8,887명으로 급감했을 정도였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이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측에서 청소년의용군 당사자의 보고문학인 『흙과 싸우다』에 주목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白取道博, 2008,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史研究』, 札幌: 北海道大學出版部, 4, 216쪽.

4) 白取道博, 2008, 위의 책, 13쪽.

5)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청소년의용군의 계획 인원은 151,300명이었으나 실제 송출 인원은 이에 못 미치는 86,530명이었다. 白取道博, 2008, 위의 책, 5쪽.

6) 表 1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 送出狀況(1938~1945年度) 참고, 白取道博, 2008, 위의 책, 5쪽.

당시 각각 농림성과 척무성의 후원을 받아 결성된 농민문학간화회(1938)나 대륙개척문예간화회(大陸開拓文藝懇話會, 1939)와 같은 국책단체의 문학자들이 만주이민, 특히 청소년의용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작가가 자신이 ‘선전문학’이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청소년의용군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직접 창작한 작품은 문학적인 가치 이전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이 작품이 빈약한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를 받는데에는, 작가의 체험이 그대로 표현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초기 청소년의용군의 문학적 표상으로서 『흙과 싸우다』⁷⁾의 위치와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서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용군의 문학적 표상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매우 적다.⁸⁾ 이런 상황에서 『흙과 싸우다』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이 연구는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비롯된 ‘내지’ 농촌의 피폐와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던 만주이민 정책 속에서 전쟁에 동원되는 일본인 대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민 송출국인 ‘내지’와 그 목적지인 만주국 사이의 일본인 이민의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전후 귀환 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의용군의 ‘피해자’로서의 표상과 비교할 대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흙과 싸우다』의 『신만주』 연재와 단행본 『흙과 싸우다』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으나, 지면 등 여러 제약을 고려하여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8) 줄저, 2016, 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1집; 줄저, 2016, 「帝國の文學とイデオロギ—滿洲移民の國策文學」, 東京: 世織書房, 第2章 第3節.

II. 국책잡지의 문학 기획과 보고문학

『신만주(新滿洲)』는 제국일본의 만주이민 조성 기관인 만주이주협회(滿洲移住協會, 이하 만이)⁹⁾의 기관지였다. 만주이민 조성 기관으로서 선전 활동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고바야시 고지(小林弘二)의 연구에 의하면, 홍보부가 이 단체의 기관지 출판물 및 간행물을 취급했다. 홍보부가 담당한 영역은 매우 광대했는데, 영화, 연극 등 홍보 선전 및 개척문화사업까지 포함했다.¹⁰⁾ 한편 기관지인 『신만주』는 1936년 4월 25일 『개척 만몽(拓け滿蒙)』(1936. 4. 25)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뒤 『개척 만몽(拓け滿蒙)』(1936~1939), 『신만주』(1939~1940), 『개척(開拓)』(1941~1945)으로 세 번 제목을 바꾸어 발행되었다.¹¹⁾ 만이가 만주국의 만주척식공사(滿洲拓殖公社, 이하 만척)에 대응하는 제국일본의 만주이민 조성 기관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기관지가 농민문화간화회나 대륙개척문예간화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관지는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 곤도 하루오(近藤春雄),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 장혁주 등 두 단체의 문학자들의 ‘만주개척’ 관련 작품을 적극적으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간노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기성 작가들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처음 『신만주』에 년장의용대(嫩江義勇隊)¹²⁾ 훈련생 간노 마사오의 작품 『현지보고: 흙과 싸우다(상)』이 실린 것은 1939년 5월 1일 발행 『신만주』 제3권 제5호였다. 내용은 간노가 1938년 4월 첫 번째 청소년의용군 선견대로서 만

9) 만이는 관동군이 중국농민의 대규모 반만항일 무장봉기인 투롱산사건(土龍山事件, 1934)의 선후책을 세우기 위해 주최한 대만농업이민회의(對滿農業移民會議, 1934. 11. 26~12. 6)의 성과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제국일본의 만주이민정책 실무자들의 모임으로서 1935년 10월 19일 정식으로 발족했는데, 일본 정부의 이민 정책 자체에 깊이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小林弘二, 1998, 『解題』, 岡部牧夫 編,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解説』, 東京: 不二出版, 13~14쪽. 패전 이후에는 이주민의 귀환을 지원하는 단체로 전환되었다.

10) 小林弘二, 1998, 위의 글, 14쪽.

11) 小林弘二, 1998, 위의 글, 13쪽.

12) 현지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려하여 의용군 대신 의용대라고 불렀다.

주에 도착하여 입소한 현지 훈련소인 년장청소년의용군 훈련소에서 겪은 체험이었다. 그 다음 호에 『흙과 싸우다(하)』(제3권 제6호, 1939년 6월 1일 발행)가 실렸고, 다시 4개월 뒤에 『흙과 싸우다(속)』(제3권 제10호, 1939년 10월 1일 발행), 『현지보고: 흙과 싸우다(속)』(제3권 제11호, 1939년 11월 1일 발행), 『현지보고: 흙과 싸우다(속)』(제3권 제12호, 1939년 12월 1일 발행)로 이어졌다. 제3권 제10호에 실린 『흙과 싸우다(속)』을 제외하면 모두 표지에 “현지보고(現地報告)”가 붙어, 보고문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흙과 싸우다』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1940년 1월 1일이었는데, 『신만주』는 이후 “간노 마사오저 『흙과 싸우다』—여러 명사에게 듣는 독후감(諸名士に聞<讀後感)>”을 제4권 제3호(1940년 3월 1일 발행)부터 제4권 제10호(1940년 10월 1일 발행)의 “『흙과 싸우다』에 빛나는 영예 아리마상을 받다(『土と戦ふ』に輝く名譽有馬賞を受く)”까지 매달 게재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발행권수 | 발행일 | 기사 제목 | 독후감 |
|---------|----------|---------------------------------|--|
| 제4권 제3호 | 1940.3.1 | 간노 마사오저 『흙과 싸우다』—여러 명사에게 듣는 독후감 | 사쿠라이 다다요시(櫻井忠温, 육군 소장), 『널리 읽히고 싶다(廣く讀まれたい)』, 아키타 료사쿠(秋田兩雀, 평론가), 『귀중한 인간기록(貴重な人間記録)』, 하세가와 신(長谷川伸, 작가), 『영화·극화도 유의미(映畫・劇化も有意義)』, 호소다 다미키(細田民樹, 작가), 『진실감에 눈물짓다(眞實感に涙ぐむ)』, 다케다 도시히코(武田敏彦, 작가), 『갈망을 채우는 양서(渴望を充たす良書)』,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 작가), 『대륙문화의 맹아(大陸文化の芽生え)』, 시라토리 쇼고(白鳥省吾, 시인), 『감동한 귀한 기록(感動した尊い記録)』 |
| 제4권 제4호 | 1940.4.1 | 『흙과 싸우다』, 문부성 추천사, 여러 명사의 독후감 | 구와키 겐요쿠(桑木嚴翼, 문학박사), 『과장 없는 묘사(誇張なき描寫)』, 스즈키 구라조(鈴木庫三, 육군성 정보부 소령), 『흙에 사는 진실한 문학(土に生きる眞實の文學)』, 도이 반스이(土井晩翠, 교수), 『통절한 체험기(痛切な体験記)』, 마쓰다 도키코(松田解子, 작가), 『적나라한 묘사(赤裸々な描寫)』, 가이온지 조고로(海音寺潮五郎), 『직업문사를 부끄럽게 만든다(職 |

| 발행권수 | 발행일 | 기사 제목 | 독후감 |
|----------|-----------|-------------------------------|--|
| | | | 業文士を愧死), 곤도 하루오(近藤春雄, 평론), 『협동정신의 무조(共同精神の浮彫)], 이노우에 도시로(井上友一郎, 작가), 『반성시키는 책(反省させる書)], 사카키야마 준(榊山潤, 작가), 『공상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空想の及ばぬ現實)], |
| 제4권 제5호 | 1940.5.1 | 『흙과 싸우다』, 문부성 추천사, 여러 명사의 독후감 |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야마토민족의 발전에 희망을 품게 하는 책(大和民族の發展に希望を懐かせる書)],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 작가), 『기성작품에 없는 기백(既成作品にない氣魄)],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작가), 『환경을 극복하는 순정(環境に打ち勝つ純情)], 가미이즈미 히데노부(上泉秀信, 극작가), 『몇 번이고 눈물을 자아내다(幾度も涙を誘はる)], 다고도라오(田郷虎雄, 작가), 『신시대의 신문학(新時代の新文學)], |
| 제4권 제6호 | 1940.6.1 | 『흙과 싸우다』, 문부성 추천사, 여러 명사의 독후감 | 아베 도모지(阿部知二, 작가), 『대륙문화의 싹(大陸の文化の芽)], 『도쿄일일(東京日日)신문』, 2월 1일 게재, 오에 겐지(大江賢次, 작가), 『의용군 모두의 긍지(義勇軍全員の誇り)], 하타도모키치(秦豊吉, 도호(東宝)), 『정열의 영속을 바란다(熱情の永續を望む)], 도요다 사부로(豊田三郎, 작가), 『방관자는 못 쓸 기록(傍觀者が書けぬ記録)], 기무라 소주(木村莊十, 작가), 『소년의 『흙과 명사』(少年の『土と兵隊』)], 사토 소노스케(佐藤忍之助, 시인), 『정직함이 좋다(正直さがよい)], |
| 제4권 제7호 | 1940.7.1 | 『흙과 싸우다』, 여러 명사의 독후감 | 이이지마 다다시(飯島正, 평론가), 『일을 진행시키는 반성(仕事を進める反省)], 야마자키 요시오(山崎芳雄, নিজ장훈련소장), 『작자의 대성을 바란다(作者の大成を望む)], |
| 제4권 제8호 | 1940.8.1 | 『흙과 싸우다』 독후감 작가 와다 덴(和田伝) | 와다 덴(和田伝, 작가), 『담담히 묘사한 농민의 역사적인 큰 걸음(淡々と描かれた農民の歴史的巨歩)], |
| 제4권 제9호 | 1940.9.1 | 『흙과 싸우다』, 여러 명사 및 잡지평 | 하세가와 신, 『가르치는 문학(教へる文學)], 오오이시 지요코(大石千代子),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실감(胸にせまる實感)], 잡지 『대륙(大陸)』 평, 『속편을 바란다(續編をのぞむ)], |
| 제4권 제10호 | 1940.10.1 | 『흙과 싸우다』에 빛나는 영예 아리 |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심사위원의 평), 『『흙과 싸우다』를 추천한다(『土と戦ふ』を推す)], |

| 발행권수 | 발행일 | 기사 제목 | 독후감 |
|------|-----|--------|---|
| | | 마상을 받다 | 간노 마사오, 『감상(感想)』, 기기 다카타로 (木々高太郎, 작가), 『적절한 소년의 읽을거리 (適切な少年の讀物)』, 마카베 진(眞壁仁, 작가), 『대륙문화 창조(大陸文化の創造)』, 『도쿄일일신문』, 『내지에 호소하는 목소리(内地に呼びかける聲)』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개월에 걸친 특집 기사에 독후감을 실은 ‘명사들은 청소년의용군 및 육군 관계자 3명(櫻井忠溫, 山崎芳雄, 鈴木庫三), 농민문학간사회·대륙개척문제간사회 회원 8명(福田清人, 近藤春雄, 井上友一郎, 榊山潤, 徳永直, 湯淺克衛, 田郷虎雄, 和田伝), 그 밖의 작가 16명(長谷川伸, 細田民樹, 武田敏彦, 白鳥吾吾, 松田解子, 海音寺潮五郎, 上泉秀信, 阿部知二, 大江賢次, 豊田三郎, 木村莊十, 佐藤惣之助, 大石千代子, 加藤武雄, 木々高太郎, 眞壁仁)·평론가 4명(秋田兩雀, 桑木巖翼, 土井晚翠, 飯島正), 언론인 1명(徳富蘇峰), 영화 관계자 1명(奏豊吉), 다른 매체의 평(잡지『대륙』과 『도쿄일일신문』)이었다.

통상적으로 아마추어 작가의 첫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는 “정가 가격(50전), 송료(6전)/46판 160쪽 아트 사진 8쪽/서점에 품절일 경우에는 송금(振替)으로 직접 협회에 신청해 주십시오/발행처 재단법인 만주이주협회”라고 구체적인 구입 정보가 게재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광고 문구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이다.

| 발행권수 | 발행일 | 광고 문구 |
|---------|----------|---|
| 제4권 제3호 | 1940.3.1 | 간노 마사오저 철도자경하천(鐵道自警哈川)훈련소 훈련생/『흙과 싸우다』 완결편/19세 의용군이 쓴 피와 땀의 개척기록·문단인도 경탄한 보고문학! |
| 제4권 제4호 | 1940.4.1 | 대륙을 개척하는 의용군의 수기/『흙과 싸우다』 완결편/문부성 추천 도서의 영광(榮冠)! |
| 제4권 제5호 | 1940.5.1 | 간노 마사오저/『흙과 싸우다』 완결편/문부성·척무성 추천 도서/19세 의용군이 쓴 불굴의 르포르타주(報告文學) |
| 제4권 | 1940.6.1 | 만철하천훈련소 훈련생 간노 마사오저/『흙과 싸우다』 완결편/ |

| 발행권수 | 발행일 | 광고 문구 |
|---------|----------|--|
| 제6호 | | 문부성·척무성 추천 도서/대지에 올려 퍼지는 청소년의 건설보/의용군이 쓴 개척 기록/증쇄 시작 |
| 제4권 제7호 | 1940.7.1 | 문부성·척무성 추천 도서/간노 마사오저『흙과 싸우다』 완결편/대지에 올려 퍼지는 청소년의 건설보/의용군이 쓴 개척 기록!!/초판 1만부 품절! 재판(再版) 시작! |
| 제4권 제8호 | 1940.8.1 | 문부성·척무성 추천 도서/간노 마사오저『흙과 싸우다』 완결편/젊은 의용군이 쓴 불굴의 르포르타주(報告文學) |

광고의 중심은 『흙과 싸우다』가 젊은 의용군이 자신의 체험을 옮긴 수기, 즉 보고문학이라는 점, 문부성 및 척무성의 권장 도서 선정, 베스트셀러로서의 인기 등이다. 명사들의 독후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신만주』의 문학 기획으로서의 『흙과 싸우다』 광고는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로서 문학자들의 권위만이 아니라 관계 기관·문학상의 권위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8개월에 걸친 독후감 게재에서도 일반 독자의 독후감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흙과 싸우다』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취가 대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 독후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아무런 문학적 기교가 없고, 또한 문학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찾지 못했다”고 단언한 뒤 “가식 없는 생활 기록”이라는 점에 “이 책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인식했다”¹³⁾고 지적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독후감의 “소박하기는 하지만 진실한 문학”¹⁴⁾, “소박한 생활 감정의 표현”¹⁵⁾이라는 언급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부족하지만 청소년의용군 청년이 직접 그 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사실, 즉 문학 외재적인 가치로 인해 이처럼 대대적인 지원과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다던 것이다. 이는 『흙과 싸

13) 徳富蘇峰, 1940. 5, 『大和民族の發展に希望を懐かせる書』, 『新滿洲』 第4卷 第5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9卷, 東京: 不二出版, 150쪽.

14) 鈴木庫三, 1940. 4, 『土に生きる眞實の文學』, 『新滿洲』 第4卷 第4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9卷, 東京: 不二出版, 66쪽.

15) 近藤春雄, 1940. 4, 『共同精神の浮彫』, 위의 책, 66쪽.

우다」가 청소년의용군 사업을 장려하는 일종의 ‘선전문학임을 뜻했다.

실제로 당시 『신만주』에서는 「흙과 싸우다」 연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성 전업 작가의 작품을 주로 게재했지만 「흙과 싸우다」 이후로는 체험기의 현상 공모를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939년 4월에 『개척 만몽(拓け滿蒙)』에서 『신만주』로 개제(改題)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의용군에 관한 적극적인 선전과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만주』로 개제한 첫 호인 제3권 제4호(1939년 4월 1일 발행)는 16쪽에 이르는 만주이민자의 사진을 실었는데 대부분 청소년의용군 중심이었고, 의용군에 관한 작가 좌담회(伊藤整, 田村泰次郎, 近藤春雄, 福田清人, 湯淺克衛, 松崎不二男, 장혁주, 기자), 의용군 현지보고, 국경시대 의용군 특집, 부형회(父兄會)·가족회, 아마자키 년장(嫩江)훈련소장과 부형들의 좌담회, 청소년의용군 모집요강에 이르기까지 주요 기사의 중심이 일제히 청소년의용군 지원으로 재편되었다. 그 다음 호에 바로 「흙과 싸우다」 연재가 시작되고, 7월호부터는 체험기의 현상 모집¹⁶⁾이 시작되었다. 또한 간노 자신은 「흙과 싸우다」가 “내가 글을 쓰려고 쓴 첫 작품이며, 처음에는 발표 같은 것은 염두에 없었다”¹⁷⁾고 밝혔다. 간노의 첫 연재가 시작된 자세한 경위는 자료상의 한계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소설의 연재 및 단행본 출간, 대대적인 홍보는 『신만주』로 개제한 ‘국책잡지’의 새로운 방향성과 맞아 떨어지는 문학 기획 상품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전문학’으로서의 보고문학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시라토리 쇼고(白鳥省吾)는 이 책을 읽고 “순진한 소년의 기록에 감동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과실이 소년의용대를 괴롭히는 폭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가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¹⁸⁾고 썼다. 시라토리의 지적은 보고문학, 즉 사실

16) 『懸賞募集』, 1939. 7, 『新滿洲』第3卷第7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第6卷, 東京: 不二出版, 165쪽.

17) 菅野正男, 1940. 10, 『感想』, 『新滿洲』第4卷 第10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第11卷, 東京: 不二出版, 125쪽.

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수기’라는 문학 형식이 내포하는 역설의 존재를 암시한다. 바로 청소년의용군 청년이 만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반드시 만주이민을 장려하는 측이 원하는 것 이상을 묘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위험한 가능성은, 청소년의용군의 ‘순진한 청소년’이라는 표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Ⅲ. ‘순진한 청소년’의 만주이민

『흙과 싸우다』는 2개월의 내지 훈련을 마치고 만주에 도착한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전편(봄~가을)과 후편(겨울)으로 나뉘는데, 전편은 ‘입소일’, ‘시련’, ‘모래 먼지’, ‘건설’, ‘둔간병’, ‘흙투성이’, ‘아메바(이질) 일기’, ‘본(本) 건축으로’, ‘일요일’, ‘흙과 싸우다’, ‘본대’, ‘비상소집’, ‘늪우침(悔)’, ‘낙성식’이고, 후편은 ‘겨울이 오다’, ‘설중훈련’, ‘온돌 폐지’, ‘새해’, ‘첫 소식’, ‘격려’, ‘위병 근무’, ‘비적 퇴차’, ‘유언비어’, ‘해빙기’, ‘명령’의 각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편은 주로 만주에 도착해서 처음 겪은 일을, 후편은 겨울에 경험한 일들을 그렸다. 특히 전편은 청소년의용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1938년 4월 25일, ‘나’는 현지 훈련소에 입소한다. 역에서 훈련소까지는 3킬로미터의 비포장도로가 뻗어 있고, 임시 숙소는 고르지 않은 지면에 바로 기둥을 세워 암페라 천을 친 가건물이다. 우물물은 누렁고 냄새가 나며, 식사는 조밥(粟飯)이다. 그런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소년들은 곧바로 노동력으로 동원된다.

5월 1일부터 소년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식전(食前)운동으로 3킬로미터가 떨어진 역에서 건축 자재인 통나무를 나르게 된다. 왕복 6킬로미터를

18) 白鳥省吾, 1940. 3, 『感動した尊い記録』, 『新滿洲』 第4卷 第3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8卷, 東京: 不二出版, 113쪽.

이인 일조로 통나무를 나르고, 아침 식사를 한 뒤 9시부터 만척의 지도에 따라 건축 응원을 가기도 하고, 도로 공사 작업을 했다. 이 도로 공사가 특히 가혹했는데, ‘나는 이를 담담히 묘사한다.

성(省)도로라는 것은 내지(內地)의 국도(國道)와 같은 것으로 상당히 큰 도로였다. 이 공사에는 만척공사 선생님의 지도로 일했다. 점심 식사로 만두를 세 개씩 식기 주머니에 넣고 2리(里)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갈 때도 있었다. 정면으로 불어 닦치는 모래바람에 눈을 다치므로 삼으로 가리고 갔다. 공사에서 돌아올 때는 마치 만 사람처럼 새까매져서 돌아왔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눈물이 난다. 흙 묻은 손으로 문지른다. 그때 다시 모래바람이 분다. 그 다음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식으로 눈이 나빠진 사람이 많았다.

멀리 갔을 때는 작업을 멈추고 돌아오면 다른 중대는 이미 식사를 끝낸 뒤였다. 만두만 먹은 터라 숙소로 돌아오면 모두 일어서는 법을 잊은 듯이 축 늘어졌다. 이제 배에 전혀 힘이 없는 것이다.

이럴 때 고향에서 편지라도 오면 가장 든든하겠건만, 편지도 내지 훈련소처럼 오지는 않았다. 이쪽도 바빠 편지를 못 썼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일요일에도 쉬는 것은 대개 오후라 세탁도 제대로 못 해서 껌죄죄한 옷을 입고 있고, 입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 벼룩이 생겼다. 처음에는 모두 숨기려 했지만 점점 모두 벼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연히 벼룩 잡기를 했다. 그것은 우스운 꼴이었지만, 만약 이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리라.¹⁹⁾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가혹하다. 아직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점심으로 만두 3개만 제공하고, 공사 현장이나 왕복 도로는 모래 먼지가 휘날리는 척박한 환경이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도 받지 못한다. 숙사의 설비도 청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들은 가장 먼저 위생을 포기한다. 태연하게 옷을 벗고 벼룩을 잡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의 눈물을 떠올리는 ‘나의 시선은 분명 비판적이다.

더욱이 이들이 동원된 건축 응원은 그들의 숙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19) 菅野正男, 1940, 『土と戦ふ』, 東京: 滿洲移住協會, 18~19쪽. 이후에는 쪽수만 표기한다.

도로 공사 역시 사도(私道)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공도(公道)이다. '나는 만척에서 파견된 지도원의 지도에 따라 일했다고 서술했는데, 실제로 만척이 당시 만주국 정부의 시설 원조를 받아 현지 훈련소를 운영했다.²⁰⁾ 『흙과 싸우다』는 청소년의용군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만을 제공받고 가혹한 환경에서 무임금으로 중노동에 종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 이민의 경우, 이러한 노동력 착취가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흙과 싸우다』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의용군이 가혹한 환경과 참담한 대우에 저항감을 느끼고 불평하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밥에 다시마국(昆布汁)뿐인 식사가 계속되자 영양 결핍으로 야맹증, 각기병이 유행하고, 절망하거나 비판하는 소년들이 늘어났다. 자연히 식량 운송을 담당하는 식량 수송부와 조리를 담당하는 영양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해결책은 민들레나 질경이 같은 야생초를 섭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청소년의용군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계절이 여름에 접어들면서 겨우 소속 중대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는데, '나를 비롯한 소년들은 도로 공사와 달리 열성적으로 일을 한다. 소년들은 훈련소 본부에서 북쪽으로 3킬로미터 거리의 공사 현장까지 매일 식기(飯盒)에 쌀과 조를 담아 가는데, 중대 우물의 수질이 나빠 쌀을 미리 물에 불려 가져가기도 하고, 반찬은 된장뿐이거나 우메보시(梅干)나 단무지일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모두 기뻐했다. 정지(整地), 건축법, 지금까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건축 응원이 도움이 되어 대충 요령을 알고 있으니 일은 척척 진전되었다. 역시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데는 팔에 다른 힘이 깃들었다. 오후 7시에 작업이 끝나고 8시의 저녁 식사인 일과 시간을 훨씬 넘겨 8시까지 작업을 하고, 3킬로미터 길을 되돌아와 식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할 때 소등나

20) 白取道博, 2008, 앞의 책, 68쪽.

팔이 올리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22쪽)는다. 대우는 비슷하지만, 소년들의 의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생활할 중대 건물의 건축이라는 점 하나 뿐이다. 이 사실은, 소년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도로 공사나 건축 작업에 동원되는 “건축 응원”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봄에서 여름까지 이어지는 『흙과 싸우다』의 내용이 주로 건축에 관련된 노동력 동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묘사는 청소년의용군 소년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와 착취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권위와 규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나 저항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용군이라는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의 권위만이 아니라 군대 상급자/하급자의 상하 관계, 그리고 교사/학생이라는 사제 관계가 중첩되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하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청소년의용군 제도의 발상 자체가 시험이민기에 관동군의 강압적인 토지 매수에 반발한 현지 주민의 대규모 반만항일 무장봉기인 투룡산사건(土龍山事件, 1934)의 충격에서 시작되었다. 가토 간지(加藤完治)와 함께 ‘만주이민의 아버지’라고 불린 관동군 장교 도미야 가네오(東宮鐵男)는 『제2차 이후 이민인선요망(第二次以後移民人選要望)』에서 아홉 번째 항목으로 “순진한 연소자(純眞/年少者)”를 들었다.²¹⁾ 현지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이민자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한 만주이민 정책 추진 측은 ‘순진한 청소년’을 동원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또한 아직 편견이 덜한 청소년은 ‘교육’을 통하여 이상적인 이민자로 길러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시라토리 미치히로(白取道博)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청소년의용군의 존재가 가능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능동성”을 조직화하고, 참가 인원을 “교육” 관념을 통해 확보했다는 점을 들었다.²²⁾ 청소년의용군은 정책적으로 미성

21)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1940, 『東宮鐵男伝』, 新京: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174쪽.

22) 白取道博, 2008, 앞의 책, 4쪽.

년자에게 ‘나라를 위해’ ‘국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한편, 무상으로 군사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선전함으로써 모집인원을 확보하려 했다.

『흙과 싸우다』에서 300명의 청소년의용군은 불과 4명의 교사/상급자/성인에 대응하는 학생/하급자/미성년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는 ‘순진한 청소년’으로 묘사된다. 그 ‘순진한 청소년’들의 이민이 성인 이민에 비하여 권위에 약하고 통제하기 용이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입안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청소년의용군 묘사가 만주이민을 추진하는 측에게도 환영할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흙과 싸우다』가 담담히 묘사하는 착취와 부당한 대우는, 그것이 어떤 개인의 악의나 잘못이 아니라 청소년의용군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정신주의의 한계

시라토리가 지적했듯이, 청소년의용군 모집에서는 청소년의용군이 의무적으로 3년간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농업만이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가진 ‘특수 직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흙과 싸우다』의 소년들이 현지 훈련소에서 그런 선전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사실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은 ‘나의 내지 훈련소 시절 친구인 다나베(田辺)이다.

다나베의 주장은 이러했다. 의용군은 3년 기간 중에 군대와 동등한 군사 교육을 받지만, 군대에 가지 않고 바로 이주지로 입식한다. 그리고 희망자는 지원하면 입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또한, 희망과 능력에 따라 농업 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농업 이외의 직업 쪽으로 가는 건 특별한 사람뿐이었

다. 다나베와 같은 심정인 사람도 꽤 있었다. 나에게도 그런 기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29쪽)

다나베는 청소년의용군에 참가한 것을 그저 후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3년 뒤에도 농민이 되어야만 한다면 당장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열아홉이라는 나이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32쪽)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흙과 싸우다』에서 청소년의용군은 1년 중 거의 대부분을 각종 중노동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 『흙과 싸우다』에서 ‘나와 소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학과 공부가 시작되는 것은 추위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12월 이후였고, 그 내용이나 질도 정규 교과 과정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미 6월 하순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주장을 피력한 다나베는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친구들은 다나베가 일종의 적응장애인 둔간병(屯墾病)에 걸렸다고 여긴다.

그(다나베)의 앞에는 선생님의 가르침도, 출발할 때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었다.

“다나베도 결국 대의와 소아(小我)를 착각했군.”

늘 대의를 논하는 야스다(安田)가 말했다.

“아니 머지않아 좋아지겠지.”

“그렇겠지, 빨리 다나베가 낫지 않으면 웬지 우리까지 옮을 것 같아.”

“정말이지……하하하…….”

야스다도 함께 소리 내어 흥소(哄笑)를 터뜨렸다. 웃기는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다나베와 같은 마음이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32쪽)

소년들은 다나베의 현실적인 비판을 둔간병 탓이라고 웃어넘기려 하지만, 그들이 “마음 어딘가에 다나베와 같은 마음이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들도 다나베의 주장이 옳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다나베의 등간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흙과 싸우다』에서 청소년의용군이 직면한 여러 모순은 결국 청소년의용군 제도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청소년의용군의 가치 체계를 부정하고 벗어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다나베는 퇴소하지 못하고, 몇 달 뒤 ‘나와 친구들이 외출 허가를 받아 들판으로 놀러갈 때 함께 가자고 권한 것을 계기로 친구들과 화해한다. 다나베는 친구들에게 매일 아침 일하지 않는 소년들을 돌며 아픈 곳이 있다고 물어보는 교사의 정성과 아침 점호를 빠졌을 때 “모두 함께 부르는 『기미가요(君が代)』를 들을 때는 내지 혼련소 시대를 떠올리고 왜 나는 그때처럼 성실할 수 없는가, 나도 일본인이지 않은가—” 괴로워했다는 고백을 듣는다. 다나베의 고백은 교사의 인격적 배려나 자질에 의한 감화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정신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책이민으로서의 만주이민에서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많은 일본인 이민자들이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조선인 등 타민족 주민에 관해서는 아예 “염두에 없었”²³⁾고, 만주이민이 타국으로의 이주라는 인식도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인 이민단은 입식지의 중국인과의 긴장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지’에서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인’이라는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가시화되기도 했다.²⁴⁾ 즉 만주에서 타자와 조우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반면 『흙과 싸우다』에서 소년들은 대단히 관념적인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일본인’의 이미지는 설령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당하더라도 성실하고, 집단의 규칙에 순응하며, ‘대의’와 ‘소아’를 착각하지 않는 대단히 체제순응적인 인물상이다. 그러

23) 아라라기 신조(蘭信三)는 일본인 만주이민 체험자의 만주이민 이전의 중국인·조선인관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7할 이상의 사람들이 선입견 없이 이주했다는 것이었다. 蘭信三, 1994, 『「滿洲移民」の歴史社會學』, 行路社, 291쪽.

24) 蘭信三, 1994, 위의 책, 205쪽.

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인격적 배려나 자질,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청소년의용군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다니베의 “자아비판”은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비판이 매우 감정적이고 정신주의적인 억압에 순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니베의 비판과 화해, 자아비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흙과 싸우다』 서사 전체로 확장된다. 『흙과 싸우다』에서 봄에서 여름까지 이어지는 가혹한 만주의 환경과 노동력 착취에 관한 솔직하고 담담한 묘사는 ‘순진한 청소년’의 시선으로서 일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후편에서 ‘나는 그 가혹한 환경을 정신주의로 ‘극복’하고자 한다. 그 예 중 하나는 온돌이다. 고된 건축 공사 끝에 청소년의용군의 정식 숙소가 완성되지만, 현지 주민이 만든 온돌은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탓에 ‘나도 눈을 다치고 만다. 하지만 소년들은 온돌을 수리하거나 개량하는 대신 아예 온돌을 폐지하고, 냉수마찰로 영하 30도의 추위를 극복하려 한다. 이 냉수마찰은 소년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대장의 “몸을 위해서다, 몸을 위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다—(106쪽)”라는 명령에 의한 것이다. 중대장이 부르는 이 “나라”가 만주국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흙과 싸우다』의 서사가 후반에 힘을 잃는 것은, 이런 식의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신주의가 만주의 가혹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것도,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흙과 싸우다』에서 ‘순진한 청소년’인 ‘나는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주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재생산한다.

심지어 ‘나는 현재의 참혹한 환경도 전쟁을 수행하는 ‘내지’의 고통과 비교하면 참을만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는 ‘내지’에서 보내온 위문품인 손수건과 목장갑을 보고 “자국(自國)의 긴박한 정세에 놀라고, 동포의 배려에 울고, 자신의 존재에 감사”한다(125쪽). 신문이나 친구의 편지로 전시체제 때문에 인조 섬유인 단섬유의 유행이나 신발이 부족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 때문에 고무신도 없는 ‘내지’ 농촌과 두터운 외투, 방한 신발,

고무장화 및 장갑을 지급받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투정하고 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때 ‘나는, 『흙과 싸우다』에서 거의 전체에 걸쳐 묘사된 가혹한 환경이나 자신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부당함을 까맣게 잊은 듯이 보인다.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사변에 무관심했던 나”는 위문품 속에서 발견한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흙과 병사(土と兵隊)』(改造社, 1938)를 읽고 “우리들이 겪은 ‘고통’의 몇 십 배나 되는 ‘고통’이 평범한 일처럼”(127쪽) 서술된 것에 큰 충격을 받는다. 결국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제국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서 자각한 ‘나는 채벌반을 응원하기 위해 ‘비적 퇴치’에 나서는 3중대의 동료들을 전송하며 “공을 세울 기회를 놓친 듯한, 그러면서도 마음 속 어딘가에서 안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 없는 옥설을” 듣는다(141쪽). ‘나는 제국일본의 ‘전쟁’이 바로 만주와 이어진 중국대륙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어째서 ‘일본인’인 자신이 만주에서 ‘국책’에 협력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아무리 엄혹한 만주의 기후도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생각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눈에는 현지 주민들의 얼굴도 그저 “가없는 걸인의 우는 얼굴처럼도, 익살스러운 광대처럼도”(145쪽) 보이는 타자의 낯선 얼굴일 뿐이다.

소설은 ‘나를 포함한 소년들이 이동 명령을 받고 떠나는 장면으로 끝난다. 소년들은 짐을 실을 트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역까지 6킬로미터의 길을 3번에 걸쳐 짐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교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고, 소년들은 순순히 명령에 따른다. 다른 소대가 도와줘서 한 번에 짐을 나르는데, ‘나는 그 소대가 교사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은 조용히 선생님 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교사의 말을 떠올리며 깊은 감동을 느낀다. 결국 『흙과 싸우다』의 서사에서 청소년의용군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은 완전히 사라지고, 조국인 제국일본을 향한 충성과 정신주의, 상명하복에 대한 복종만이 남는다.

간노와 거의 같은 시기, 고바야시는 만주를 여행하며 청소년의용군 쏘우

(孫興)훈련소와 이민촌(瑞穗村)을 방문했다(1938년 10월~12월). 그리고 『신만주』에 『흙과 싸우다(상)』이 연재되기 3, 4개월 전 『개조(改造)』에 『만주의 인상』을 게재했다. 이 수필에서 그는 현실적인 교육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박한 실행자”들이인 청소년의용군 지도자들의 뚜렷한 정신주의적 경향에 강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²⁵⁾ 또한 청소년의용군의 젊음과 순진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인상적으로 묘사했다.

소년들의 표정은 기묘한 것이었다. 기운차 보인다고 생각하면, 머쓱해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쾌활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하여 처음의 그 느낌을 도무지 잡을 수 없었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그리고 일종의 형용할 수 없는 동정을 느꼈다. 소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난해한 것도 없었다. 보는 내 마음이 복잡했던 것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투명한 아이의 얼굴이었다. 그야말로 곤란에 처한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인 것이다.

소년에게는 어른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는 없다. 그 대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 희망에 사는 재능이 없는 대신, 절망과 같은 관념을 만들어 낼 재능도 없다. 그 천진함을 소년들의 얼굴에서 분명히 읽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의 반항도 복종도 천진한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지도자들은 소년들을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년들에게 휘둘러지고 있다.

결핍도 또 하나의 훈련이다, 그런 어른의 로맨티시즘을 아이의 천진함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²⁶⁾

그러나 고바야시의 예상과 달리, 『흙과 싸우다』라는 작품은 한 청소년의용군 소년이 대의를 믿고, 혹독한 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적응하려 애쓰며, “어른의 로맨티시즘”을 진정 이해하지는 못하면서도 어떻게 스스로 ‘복종’을 체화해갔는지 묘사했다. 그리고 국책잡지 『신만주』는 그러한 ‘순진한 청소년’의 자발적인 복종을 높이 평가하여 대대적인 지원으로 응답했고, 많은

25) 小林秀雄, 1939. 1, 2, 『滿洲の印象』, 『現代文學大係42 小林秀雄集』, 東京: 筑摩書房, 1965, 472쪽.

26) 小林秀雄, 1939. 1, 2, 위의 글, 472~473쪽.

문인들이 문학적으로는 조잡하지만 “순진한 소년의 기록”에 느낀 감동을 글로 표현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문부성과 척무성의 권장 도서로 채택되었다. 『흙과 싸우다』가 드러낸 ‘순진한 청소년’의 내면이야말로, 청소년의용군과 만주이민이라는 ‘국책’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올바른 문학의 소재였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흙과 싸우다』를 국책잡지 『신만주』의 예외적인 지원 양상과 『흙과 싸우다』의 서사가 드러내는 청소년의용군의 문학적 표상의 양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고문학인 『흙과 싸우다』는 청소년의용군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청소년의용군 제도의 여러 모순과 현실을 “폭로”하거나 “경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작품이었다. 그러나 『흙과 싸우다』의 서사는 청소년의용군이 처한 가혹한 노동과 비참한 환경을 전체주의와 정신주의로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작가와 작품의 한계만이 아니라 청소년의용군 제도의 모순이 이미 논리적인 비판이나 현실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간노가 『흙과 싸우다』를 집필한 년장(嫩江)훈련소의 소장 아마자키 요시오(山崎芳雄)은 그저 젊은 작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아 거만해지지 않을까 경계할 뿐, 이 작품에서 청소년의용군 소년들이 겪는 고된 노동과 가혹한 환경에 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²⁷⁾ 그가 『흙과 싸우다』의 청소년의용군이 겪은 부당한 대우와 여러 고난의 직접적인 책임 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뻔뻔한 태도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만주』에 게재된 명사들의 독후감 역시 모두 청소년의용군의 고난에 ‘가슴이 아프다’, ‘가엾다’, ‘장하다’는 반응을

27) 山崎芳雄, 1940. 7, 『作者の大成を望む』, 앞의 책, 87쪽.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흙과 싸우다』에서 새로운 ‘개척문학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호소다 다미키(細田民樹)는 “많은 문학자가 소위 ‘개척지’ 문학에 착수하고 있지만, 역시 금후 정말 그런 문학은 필경 현지에서 오랫동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간노군 같은 사람들에 의해 태어날 터”²⁸⁾라고 지적했다. 『흙과 싸우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웅장한 대지 밑바닥에서 싹 트는 것과 같은 강력한 무엇인가”²⁹⁾, 즉 만주에서 일본인 이민자들만의 문화가 새롭게 태어날 조짐을 읽어내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불과 2, 3년 전에 활발하게 일어난 만주문단의 ‘만주문학 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이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예측에 그치지 않았다.

1940년의 『신만주』 신년호에는 “흥아(興亞)문학을 제창한다!”는 구호 아래 상급 이백 엔을 건 단편 소설 현상 모집 광고가 실렸다. 이 “흥아문학”이란 “진행되고 있는 성업(聖業)의 발걸음을, 건설되고 있는 새로운 동아의 모습을 웅혼(雄渾)한 필치로 강하게 또한 웅대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문학”이었다.³⁰⁾ “그것도 이는 단순히 종래 순문학이나 대중문학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소위 심경소설이나 혹은 문학자를 위한 문학이어서는 안 되고, 또 단순히 흥미 본위로 즐거리를 쫓는 저급한 것이어서는” 안 되었다. “신시대의 의식과 야마토민족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학 밑에 흐르는 사상이 민중을 지도하는 힘을 가진 것이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의 것이며, 대중 속에 사는 것이어야 했다.”³¹⁾ 『흙과 싸우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의 와중에 실린 이 광고는, 『신만주』의 만주이민을 추진하는 ‘국책잡지’로서의 방향성과 『흙과 싸우다』의 문학적 위치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는 만주이민 추진 정책과 만주국 문예 정책의 방

28) 細田民樹, 1940. 3, 『眞實感に涙ぐむ』, 앞의 책, 113쪽.

29) 山名義鶴, 1940, 『序』, 『土と戦ふ』, 東京: 滿洲移住協會.

30) 『興亞文學を提唱する!』, 1940. 1, 『新滿洲』 第4卷 第1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8卷, 東京: 不二出版, 40쪽.

31) 1940. 1, 위의 글, 41쪽.

향성을 선취하는 것이도 했다. 즉, 예문지도요강(藝文指導要綱, 1941. 3)에서 “예문 활동의 촉진” 제12항목 “개척지에 예문을 침투시켜 이 땅에 싹트고 있는 예문을 육성한다”는 문예 정책의 토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³²⁾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흙과 싸우다』의 서사는 만주의 가혹한 환경과 일상적인 노동력 착취의 현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대신 ‘일본인’이라는 정체성과 학생/미성년자/하급자라는 상하 관계 속에서 정신주의로 경도되었다. 여기서 묘사되는 청소년의용군 소년들의 조국은 만주국이 아니라 제국일본이며, 그들은 ‘국책’에 공헌하는 ‘일본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흙과 싸우다』가 이른 베스트셀러로서의 성공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흙과 싸우다』가 그리는 ‘순진한 청소년’의 고난은 일본어로 쓰여 도쿄에서 출간되었다. ‘내지’의 일본인 독자들은 어린 동포의 순진함과 고통에 기꺼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의 원인인 일본민족의 ‘대륙진출’이라는 만주이민의 대의(大義)에 공감했다. 이 사실은, 작가와 독자 쌍방이 만주를 제국일본의 확장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고바야시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이는 명백히 무책임한 “어른의 로맨티시즘”이었다. 그리고 만주에서 고난을 겪는 ‘순진한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의용군의 이미지는, 패전 이후 전쟁피해자로서의 귀환자상 속에서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흙과 싸우다』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양상은 보고문학 속에 생생한 현실로 재현된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와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보고도 독자들이 그 문제성을 읽어내지 못한, 혹은 읽어도 침묵해야만 하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역설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척문학’, 그리고 새로운 ‘만주문학’의 방향이었던 것이다.

32) 武藤富男, 1942. 9, 「滿洲國の文化政策—藝文指導要綱について—」, 『讀書人』第2卷 第9号, 東京: 東京堂, 2쪽.

참고문헌

- 菅野正男, 1941, 『土と戦ふ』, 東京: 滿洲移住協會
- 菅野正男, 1940. 10, 「感想」, 『新滿洲』 第4卷 第10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11卷, 東京: 不二出版
- 蘭信三, 1994, 『「滿洲移民」の歴史社會學』, 行路社
-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1940, 『東宮鐵男伝』, 新京: 東宮大佐記念事業委員會
- 徳富蘇峰, 1940. 5, 「大和民族の發展に希望を懷かせる書」, 『新滿洲』 第4卷 第5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9卷, 東京: 不二出版
- 小林弘二, 1998, 「解題」, 岡部牧夫 編,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解説』, 東京: 不二出版
- 小林秀雄, 1939. 1. 2, 「滿洲の印象」, 『現代文學大係42 小林秀雄集』, 東京: 筑摩書房, 1965
- 近藤春雄, 1940. 4, 「共同精神の浮彫」, 『新滿洲』 第4卷 第4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9卷, 東京: 不二出版
- 武藤高男, 1942. 9, 「滿洲國の文化政策—芸文指導要綱について—」, 『讀書人』 第2卷 第9号, 東京: 東京堂
- 白取道博, 2008, 『滿蒙開拓青少年義勇軍史研究』, 札幌: 北海道大學出版部
- 鈴木庫三, 1940. 4, 「土に生きる眞實の文學」, 『新滿洲』 第4卷 第4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9卷, 東京: 不二出版
- 白鳥省吾, 1940. 3, 「感動した尊い記録」, 『新滿洲』 第4卷 第3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8卷, 東京: 不二出版
- 안지나, 2016. 6, 「전시 제국의 미성년자 동원—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의 『북만의 맑은 하늘(北滿の空晴れて)』(1943)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1집
- 安志那, 2016, 『帝國の文學とイデオロギ—滿洲移民の國策文學』, 東京: 世織書房
- 細田民樹, 1940. 3, 「眞實感に涙ぐむ」, 『新滿洲』 第4卷 第3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8卷, 東京: 不二出版
- 山崎芳雄, 1940. 7, 「作者の大成を望む」, 1940. 7, 『新滿洲』 第4卷 第7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10卷, 東京: 不二出版
- 山名義鶴, 1940, 「序」, 『土と戦ふ』, 東京: 滿洲移住協會
- 「懸賞募集」, 1939. 7, 『新滿洲』 第3卷 第7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6卷, 東京: 不二出版
- 「興亞文學を提唱する!」, 1940. 1, 『新滿洲』 第4卷 第1号, 東京: 滿洲移住協會, 1999, 『新滿洲』 第8卷, 東京: 不二出版

■ Abstract ■

The Limitations of the Informative Literature and the
Manchuria-Mongolia Youth Volunteer Corps for Development
: A focus on Kanno Masao's *Fought against land*(1940)

Ahn, Jin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on Kanno Masao's *Fought against land*(1940)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ceptional support of the national policy magazine *New Manchu* and the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This novel was regarded as the first literary achievement by a member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and was highly estimated as a propaganda literature to encourage youth volunteer corps policy, rather than seen simply through its value as a literary work. The value as informative literature derives from the autobiographical nature of the work, in which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is himself a member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In fact, this novel depicts the reality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with particular focus on unjust treatment to harsh labor exploitation. However, these realities fail to garner awareness and incite criticism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system itself, but rather seen as story of overcoming hardships through mental strength and with the acceptance of the main character's Japanese identity. This interpretation presents the limits of the youth volunteer corps system's virtue system, which is contradictory and systematically overlaps the obedience of the students / minors / subordinates to teachers / adults / superiors.

Key words : Kanno Masao, Fought against land(1940), New Manchu, the Youth Volunteer Corps for
Development of Manchuria-Mongolia, Informative Literature

